

정신질환자 '위험한 활보'

'사이코패스' 범죄 3년새 3배 이상 급증 경찰·의료기관 등 공동 관리 대책 시급

최근 아무런 원한도 없는 이웃을, 아무런 이유없이 해치는 '분자마 범죄' 등 '사이코패스(Psychopath)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예방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두 살배기 여아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중인 B군(11·초등학교 4년)은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이 앓고 있는 질환은 참을성이 적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변화가 많아 충동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특징이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B군이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잘 받아오던 B군은 지난해 여름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면서 "만약 치료를 계속 받았더라면 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초에는 여동생

을 상습 성추행한 충동조절장애를 지닌 A(18)군이 남부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정신 장애인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천912명 이었던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지난해 6천777명으로 무려 354%(4천865명)나 증가했다.



주민들 솜씨 대단해요

이번 전시회에는 북구 관내 21개 동에서 380여점이 출품됐다.

이처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를 예방,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경찰 등이 관내의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해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등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뒤에는 사후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정신질환 치료에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도 문제며, 특히 정신질환

환이 의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치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원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의 경우 약물 투여와 행동요법 등의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호전되므로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의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권위 진정에 보복 징계?

목포교도소, 재소자 징벌방 수용 논란

청와대에 탄원서를 낸 재소자를 징벌방에 가두고 무고죄로 고소해 벌금형까지 받게 한 목포 교도소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또 다른 재소자를 한 달 동안 징벌방에 가두는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징벌 과정 중에 재소자 3명을 1명 남지 않은 비좁은 징벌방에 함께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지적까지 받고 있다.

10일 목포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 수감중인 재소자 정모(47)씨는 지난 5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징벌방에 수용되는 징계를 받았다.

개인물품에서 교도소 내부 규정상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이 다수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출소자 등은 "교도소 측이 징계를 징계한 것은 정씨가 지난 4월28일 국가인권위 광주지부에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 등 교도소의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진정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정물품 보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검방'은 전체 수용거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게 관계인데, 교도소는 정씨에 대해서는 '표적 검방'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목포교도소 측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용거실을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물품에서 청모자·양면테이프·플라스틱 자(20cm 크기)등 교도소 내부 규정상 소지할 수 없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규정상 징계를 했을 뿐 '보복징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목포교도소는 정씨와 청와대 탄원과 관련해 징계당한 이모(49)씨, 청송교도소 이송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해 징계당한 서모(42)씨 등 3명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징벌방인 '미결17'방에 함께 수용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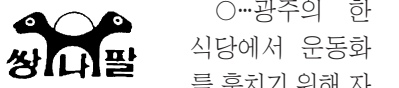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나원침 (7649)



다 중의 건축 상담처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착취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본사 : 061) 337-0571

식당밖으로 남의 운동화 찬 까닭은



○광주의 한 식당에서 운동화를 훔치기 위해 자신의 발로 신발을 식당 밖으로 차낸 30대 남성이 이를 본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0일 식당에서 남의 운동화를 훔치려한 조모(35·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새벽 5시40분께 광주시 북구 H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밤모(20)씨의 시가 5만9천원 상당의 운동화를 훔쳐려고 자신의 발로 차면서 식당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왔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신발을 신은 채 남의 운동화를 발로 걸어차면서 나오는 것을 이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적발됐는데, 경찰에서 "박씨의 신발이 너무 값져 보여 순간 마음이 동했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틈만 보이면 몰려오는 중국 어선

금어기 해제 이후 불법조업 또 기승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 사망한 고(故) 박경조 경위 사건 이후 다소 주춤했던 중국어선들의 불법 행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禁漁期)가 해제되면서 불법 행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10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100km 해상에서 중국어선 110여척 저인망어선 205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해양경비정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중국어선은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하고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의 혐의가 불발해 지난달 29일 담보금 2천만원을 내고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다

다. 또 지난 8일 오전 신안군 흑도 북서쪽 98km 해상에서 중국 저인망어선 노영여 1325·1326호가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날 오후에도 북서쪽 59km 해상에서 중국 저인망어선 노창여 5257호가 무허가 조업을 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박경조 경위 사망 사건 이후 주춤했던 중국어선들의 불법 행위는 저인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

박 경위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지난 10일 현재 중국어선들의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24건으로 담보금은 14억 5천여만원에 달하며, 붙잡힌 중국어선 900여척에 이른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과거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정윤성 음악제 예산 집행 내역 조사

검찰이 광주시 남구청을 상대로 정윤성 국제음악제 개최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남구청으로부터 2005~2006년 정윤성 국제음악제 등 정윤성 선생 추모사업과 관련한 지원 예산 및 내역 서류를 비롯한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내역이 담긴 서류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남구청이 음악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의 특별보부금, 후원금 등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만간 평생학습과 문화관광 업무

담당 부서 직원과 음악제 개최 담당 직원 등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구청 평생학습과 업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 확인중이다"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등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음악제는 광주에서 태어나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로 추앙받은 정윤성(1914~1976) 선생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2005~2006년 남구청이 주관했으나 예산 확보난 등으로 지난해부터는 광주시가 개최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침단 3,000명

OPEN **14** (금) 11월

11월 14(금) 장윤정

광주침단 · 목스즌일 **나이트**

15회 16일 조왕조	17회 18일 송대관	20회 21일 최진희
25회 박현민	27회 28일 김수희	4회 5일 설운동